

GS건설, 업계 최초 ‘자이 AI 플랫폼’ 개발

GS건설은 지난 11월 21일 업계 최초로 국내 모든 통신사 음성 엔진과 연동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의 ‘자이 AI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GS건설과 자이S&D가 함께 개발한 ‘자이 AI 플랫폼’은 기존의 홈네트워킹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쌓는다. 또 다양한 파트너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고객 만족형 플랫폼 서비스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빅데이터 기반이라는 점이다. 자이 AI 플랫폼은 아파트 내 발생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주택 관리 시스템이다.

‘자이 AI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맞는 환경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스페이스 스크프를 통해 시스클라인 공기 청정시스템과 연계해 실내공기 질 최적화를 추천하고 실별 온도를 최적화하는 자이 에너지 세이빙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자이 AI 플랫폼’은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고 있다. 플랫폼에 적용된 차세대 통합 시큐리티 시스템은 모든 보안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사 중 유일하게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방

식으로 적용된다. 2016년 이후 이미 입주한 약 6만7천 세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이S&D에서 공급하는 안면인식 로비폰과 스마트패스는 자이 앱과 연동돼 작동하고 안면인증기술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신규 현장 중 방배그랑자이, 대구북현자이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어안렌즈가 탑재된 CCTV 통합형 주차유도 시스템은 CCTV와 주차유도 시스템이 결합해 영상 인식 주차유도가 가능하다. 기존 단방향 CCTV의 단점인 사각지대까지 해소해 주차장의 안전을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한남3구역 입찰 제안서에 반영돼 시공사로 선정되면 한남자이 더헤리티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GS건설은 기존 카카오 음성인식 연동에 이어 SK 누구, KT 지니, LG 클로이, 네이버 클로바, 아마존 알렉사까지 국내에 출시된 주요 음성 엔진과 연동을 완료했다. 자이 고객은 통신사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아파트를 구축할 수 있다. ‘자이 AI 플랫폼’ 구축으로 자이는 최고 아파트 브랜드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이는 지난해 국내 대표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우무현 GS건설 건축주택부문 사장은 “GS건설과 자이S&D가 함께 구축한 자이 AI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아파트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21년까지 1만여 세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⑦

- 1 GS건설 자이 AI 플랫폼과 연동한 자이 스페이스 애플리케이션
- 2 음성 엔진을 이용한 각종 기기 제어
- 3 자이 아파트 욕실 거울에 설치된 미러패드
- 4 우무현 GS건설 건축주택부문 사장

